

1) 삼 베

무명·삼베·모시·명주는 옛날부터 우리들이 손수 무명(목화)이나 삼을 재배하여 방적해서 실을 뽑아 생산한 훌륭한 옷감들이다. 순천지역에서는 이 중에서 특히 삼베짜기가 널리 행해졌다. 지금도 상사면이나 주암면 일부 지역에서는 부업으로 삼베를 짜는 마을이 있다. 여기서는 삼베짜기의 과정과 베틀의 구조 등을 살펴보겠다.

(1) 공정과정

① 재 배

삼은 음력 3월 중순에 논이나 밭에 파종을 한다. 6~7일이면 싹이 나고 6월 중순 무렵이면 키가 6~7척 정도 된다. 완전히 성숙하면 2m 이상까지 자란다. 삼의 껍질이 삼베의 원료인 삼실이 된다.

② 수 확

논에 모를 심기 전에 삼을 베다. 직경 20cm 정도의 단으로 묶어 잎을 훑는다. 삼을 다시 키가 비슷한 것끼리 맞춰 직경 40cm 정도의 큰 단으로 묶는다.

③ 껍질벗기기

단으로 묶은 삼의 껍질을 개울가 비탈진 언덕에 비스듬히 큰 삼굿을 파고 증기로 찌는 방법과 드럼통에 넣고 삶는 방법이 있다. 삼을 찌 때는 부정을 가시기 위해 정성을 다해야 한다. 먼저 목나무를 땃짐 불구덩이에 쟁여놓고 그 위에 삼굿돌(자갈)을 십여 층 쌓고 아궁이에 불을 당긴다. 편 나무에 푼을 한 겹 깔고 삼단에 물을 뿌리며 어긋개끼로 차곡차곡 쌓는다. 아궁이에는 목나무를 하나 세워 꽃아 표시하고 돌이 무너져서 막히지 않도록 하고 삼단을 쌓은 후 김이 새지 않게 날개(덕석)를 덮고 흙을 덮는다. 삼굿돌이 빨갱게 달았을 때 돌을 판판하게 골라놓고 그 위에 흙을 덮고 물을 여남은 동이 붓는다. 그러면 빨갱게 달은 돌 위에 끼얹은 물로 인해서 생기는 뜨거운 김이 골을 통해서 삼단 위로 오르며 삼이 찌진다. 삼굿의 크기는 보통 너비가 2m 정도이며 길이 4m, 깊이 1m 정도이다.

④ 삼짜기

삼이 충분히 찌지면 식기 전에 껍질을 벗겨 물에 넣어 때를 뺀 다음 별에 말린다. 다음에는 삼을 물에 축여서 쨌다.

⑤ 삼삼기

쨌 삼을 한 묶음씩 묶어 침을 문혀서 날개를 뽑아가며 삼을 잇는다. 한 삼올의 머리 쪽을 먼저 쪼갠 다음 다른 삼올을 그 사이에 넣어 허벅지에 대고 비벼서 연결한 후 소쿠리에 담는다.

⑥ 베날기

삼올을 물레에 올려 타래를 지어놓는다. 먼저 몇 새로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. 새는 굵

기에 따라 결정되는데 팔십 올을 한 새라고 한다. 새의 종류는 일곱 새에서 열한 새까지 있다. 날들과 질들을 차리고 참새·헛새·개새에서 어긋나게 지나가므로, 고리를 형성하게 한다.

⑦ 베매기

베날기를 한 다음에 좁쌀풀을 만들어 삼올에 풀칠하는 것을 베매기라고 한다. 왕겨를 태우는 것불을 놓으면서 술에 풀을 묻혀서 삼올에 문지른다. 그렇게 하면 삼올에 묻은 풀은 것불에 의해 마른 후 도투마리에 감을 때는 삼올이 엉기지 않게 뱀대를 넣어준다.

⑧ 베짜기

베틀의 앞뒤에 기둥을 세우고 용두머리를 찢러 눈썹대를 콧고 꼬실신을 맨다. 그 다음에 도투마리를 베틀에 얹고 날실을 잉앗대에 맨다. 개툭대를 말코에 매고 부티를 허리에 두른 후 그 끝을 말코에 연결시킨다. 이와 아울러 꼬실신을 신고 한 손은 북을 넣고 다른 한 손은 바디집을 잡고 베를 짠다. 능숙한 사람은 하루에 명주·무명·삼베 같은 피륙을 스무 자 가량 짠다.